

Dynaudio DM 2/7

좋은 소리에 가까이 가는 단 하나의 진실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135만원 · 구성 : 2웨이 2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재생주파수대역 : 50Hz-23kHz · 크로스오버 주파수 : 2600Hz

· 임피던스 : 4Ω · 출력음압레벨 : 86dB · 파워 핸들링 : 150W 이상 · 크기(WHD) : 21.5×35.5×26.5cm · 무게 : 7.5kg



비록 대선에서는 억울하게 낙선했지만 환경운동 활동 등으로 당선된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고 있는 엘 고어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제목에 보면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이란 말이 있다. 별로 상관도 없는 분야이고 의미도 다르지만, 다인오디오의 DM 2/7을 앞에 놓고 음악을 흘려보내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용어인 불편한 진실이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른다.

수년 전 다인오디오의 전문 판매상 K 전자에 리뷰를 위해 방문했을 때, 그곳 사장과 막간에 나는 대화가 기억난다. 나는 다인오디오는 저가 제품이나 하이엔드나 모두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고 했고, 그분은 수많은 모델이 가격에 따라 모두 차별화된 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 말할 수 없는,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있기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 이상 논

의가 없었지만 나는 그분이 무얼 말하려는지 알고 있고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고 싶어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된다. 수많은 다인오디오의 모델들 들어 보았고 DM 2/7은 분명 그것들 중에 하위 모델이다. 2/7이 의미하는 것은 2웨이에 7인치 우퍼를 사용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DM 2/7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스테레오 재생을 하거나 혹은 AV 시스템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리뷰한 X16이 연상되지만, 사용된 유닛을 보면 오디언스 42나 52 등의 오디언스 시리즈와 비슷하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또 제원을 보면 비슷하지만, 모두 차별화된 소리라는 관점에서 DM 2/7은 X시리즈보다는 하위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해상도와 다이내믹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재생대역에서 청감상으로는 더 좁게 느껴진

다. 대편성곡이나 스케일을 좀 요구하는 곡의 경우 특히 저음역에 탄력성과 그 내려가는 폭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소리라는 관점에서 DM 2/7은 다인오디오가 가지는 매력적인 음색을 유지하고 있다. 익사이트 시리즈는 물론 최상위 라인에서 가지는 독특한 질감을 여지없이 내준다. 필자의 공간은 이 스피커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넓은 공간이지만, 자그마한 시청실에서 그리 크지 않은 편성의 곡을 재생하는 것이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능률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앰프가 AV 리시버라 해도 100W 정도 출력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AV용 스피커로도 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보급형으로도 구동이 충분하여, 앰프를 심하게 타지도 않아, 운용이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다. 게다가 상급기에 버금가는 현의 질감과 통통 튀는 음의 탄성을 가지고 있다. 그 탄력도와 재질감은 상급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지만 운용의 모를 살린다면 그에 못지않은 가능성도 보인다. 물리적인 특성 면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제한된 공간이라면 오히려 사운드 스테이지 구성 등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적 완성도가 탄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음을 들려준다.

물론 DM 2/7이나 천만원이 넘는 다인오디오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아니다. 키크럼이나 팀파니의 스케일이 확실히 상급기와는 다르다. 하지만 DM2/7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세밀한 해상도나 무대 이미지의 묘사 역시 상



급기와는 다르다. 하지만 역시 모자란 표현능력은 아니다. 오히려 몇 배, 몇 10 배의 가격을 지니는 대형 다인오디오가 과연 DM 2/7과 확실히 차별화, 고급화 되었는가 하고 비판을 가해온다면 아마 필자가 떠올린 '불편한 진실'에 접하게 될 것 같다. 굳이 가격대 성능비를 논하지 아니해도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대형기에 필적하는 음질이 나오기도 한다. DM 2/7에 사용된 트위터가 에소타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기대수준을 조금 낮춘다면, 그 차이라는 것은 그리 크지도 않다.

오디오 마니아들을 만나보면, 아니 내 자신도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쓰는 오디오의 가격으로 그 사람의 오디오적 소양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좁은 공간에서 DM 2/7 같은 작은 스피커로 음악을 즐긴다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오디오적 음향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당신보다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디오 마니아, 특히 하이엔드 유저가 인정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다. 글 신우진



애호가를 위한 오디오 특가 판매

스피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 011-687-6573

이메일 : audiospk@gmail.com



Echotech Luxe-8



Ahudor Loud Song